심층분석보고서

OCI(주)

광양공장 품질관리

2026.05.02

| 노영우 컨설턴트

심층분석보고서 : OCI㈜-광양공장 품질관리

1장: 산업(섹터) 분석

1-1. 산업 정의: 석탄화학 기반 카본케미칼과 정밀화학의 결합 구조

OCI 광양공장이 속한 산업은 단일 카테고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콜타르 정제를 출발점으로 하는 석탄화학(Coal Chemistry)과 반도체·태양광용 정밀화학(Fine Chemicals)이 같은 부지 안에서 결합된 복합 산업이며, 이러한 구조는 국내 화학 산업 안에서도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광양공장의 핵심 원료는 포스코에서 공급되는 콜타르와 코크스 오븐 가스(COG)이며, 이를 분해·증류·합성하는 과정을 거쳐 카본블랙·피치·BTX·무수프탈산·가소제·TDI를 단계적으로 생산하는 수직계열형 장치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 합작법인 피앤오케미칼은 코크스 오븐 가스를 재활용하여 반도체급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 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순수 석탄화학에서 정밀화학·반도체 소재 영역까지 외연을 확장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광양공장은 일반적인 석유화학 콤플렉스와는 다른 기술적·관리적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품질관리 부문에서 다루어야 하는 제품군과 spec의 폭이 국내 화학 사업장 가운데 가장 넓은 편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2. 가치사슬 구조와 핵심 수익 지점

광양공장의 가치사슬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단계는 포스코 콜타르·메탈실리콘 등을 공급하는 원료 공급사이며, 둘째 단계는 OCI 광양 본체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정제·합성 공정입니다. 셋째 단계는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미쉐린 등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카본블랙 수요), 알루미늄 제련사·전극봉 업체(피치 수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과산화수소·인산 수요), 가소제 가공업체(PA·DOTP 수요)로 이어지는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 완성차·전자제품·건축자재·식음료 포장재로 이어지는 후방 산업입니다. 카본블랙은 타이어 산업에 약 74.5%(2024년 기준)가 투입되고 있으며, 피치는 알루미늄 제련용 액상 피치에서 이차전지 음극재 코팅용 고연화점 피치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가치사슬에서 품질관리 부서가 가지는 위치는 원료 IQC, 공정 중간 시험, 출하 OQC, 고객 클레임 대응의 네 가지 게이트키퍼 역할이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적합과 변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 곧 회사의 평판과 영업이익률을 좌우합니다. 가치사슬 안에서 OCI가 가장 큰 마진을 확보하는 지점은 카본블랙의 자동차 OEM향 프리미엄 그레이드, 피치의 음극재용 고연화점 그레이드, 과산화수소의 반도체용 전자급 그레이드인데, 이들 모두는 품질 일관성과 인증 데이터의 신뢰도가 가격 결정력의 본질을 형성하는 영역입니다.

1-3. 최근 3~5년의 4대 트렌드

첫 번째 흐름은 태양광 폴리실리콘 시황의 V자형 사이클입니다. 2022년 정점에서 kg당 39달러였던 가격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2024년 말 4.4달러까지 폭락했으며, 그 이후 2025년 4분기 6.53달러까지 약 45%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중국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자정 시도이며, 통웨이·다코·GCL 등 상위 6개사가 2025년 8월 약 70억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하여 노후 설비 100만 톤 매입·폐쇄를 추진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세 번째 흐름은 미국 IRA, UFLPA, Section 232, OBBBA 등 일련의 정책 패키지가 만들어낸 비중국 폴리실리콘 프리미엄이며,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은 중국산 대비 약 147%의 가격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흐름은 ESG·탄소

중립 압박이며,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2030년에는 석유화학·폴리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광양공장이 보유한 ISCC PLUS 인증 카본블랙·재활용 원료 활용 능력은 점차 필수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흐름은 서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상호 강화 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ESG 규제 강화와 비중국 프리미엄이 결합되면서 비중국 출신 품질 데이터의 가치가 누적적으로 상승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4. 시장 규모와 성장률

글로벌 폴리실리콘 시장은 2025년 약 199.8억 달러에서 2033년 487.6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CAGR) 11.9%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Straits Research). 카본블랙 시장은 2024년 227.9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01억 달러로 CAGR 5.75%의 성숙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전기차용 컨덕티브 스페셜티 카본블랙 부문은 CAGR 7.8%로 더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 카본블랙 시장 자체는 2024년 3.41억 달러에서 2033년 4.69억 달러로 CAGR 3.59% 수준의 성숙기 시장이며, 신규 캐파 증설이 어렵고 기존 사업자의 생산성·품질 우위가 그대로 누적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한국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시장은 2022년 14만 톤에서 2025년 20만 톤으로 약 43% 성장하였고, AI·HBM 수요 폭발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격 협상력 또한 공급자 측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음극재용 고연화점 피치 시장은 국내 양산이 2023년 11월 OCI에 의해 처음 시작된 신생 영역으로, 향후 이차전지 산업 성장과 함께 가장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5.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는 통웨이(연 90만 톤)·GCL(연 48만 톤) 등 중국 5대사가 글로벌 공급량의 약 9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국 진영에서는 OCI TerraSus(말레이시아, 3.5만 톤에서 5.66만 톤으로 증설 진행 중), Wacker(독일, 6.5만 톤), Hemlock(미국, 3만 톤)의 3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본블랙 시장은 글로벌에서 Cabot, Birla Carbon, Orion, Tokai Carbon이 4강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OCI(광양 10만 톤+포항 17만 톤 합산 27만 톤)와 외국계 콜럼비안케미칼즈코리아·Continental Carbon Korea가 과점 구조를 형성합니다. 과산화수소 시장에서는 한솔케미칼(13.5만 톤, 1위), OCI 익산(7.5~8.5만 톤)+피앤오케미칼(5만 톤) 합산, 동우화인켐, 태광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반도체급 비중에서는 한솔케미칼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OCI는 익산과 광양 두 거점을 통해 공정용·전자급 양쪽을 균형 있게 보유한 형태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단기간에 큰 변동이 발생하기 어려운 장치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기존 사업자의 품질·인증·고객 관계가 곧 경쟁력의 본질을 형성합니다.

1-6. 지원 전략 시사점

품질관리 지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광양공장의 품질 표준이 곧 글로벌 비중국 공급망의 신뢰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UFLPA·CBAM 강화 국면에서 비중국산 카본블랙·피치의 프리미엄은 가격 차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일관성, 트레이서빌리티, 인증 데이터의 확보 여부로 결정됩니다. 이는 곧 ISO 9001, IATF 16949, ISCC PLUS의 3중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시장 구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극재용 고연화점 피치, 반도체용 전자급 과산화수소, ISCC PLUS 인증 카본블랙처럼 신생·고부가 영역이 광양공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품질관리 직무의 학습 곡선과 향후 커리어 가치가 다른 화학 사업장 대비 상

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한화솔루션: 태양광 다운스트림 강자이자 케미칼 경쟁자

한화솔루션은 2024년 매출 12조 3,940억 원, 영업손실 3,002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고, 2025년 영업손실은 3,648억 원으로 확대되며 부채비율이 194%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케미칼 부문에서는 PE, LDPE, EVA, PVC, 가성소다, TDI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TDI와 가성소다는 OCI 광양·여수 권역과 일부 겹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미국 조지아 솔라허브에 약 3.2조 원을 투자하여 비중국 셀·모듈 시장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OCI의 폴리실리콘과 한화의 셀·모듈이 수직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으나 케미칼 영역에서는 정면 경쟁자에 해당합니다. 강점은 미국 시장 주도권과 다운스트림 통합 능력이며, 약점은 케미칼 부진과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광양공장 품질관리 관점에서는 한화솔루션 여수 케미칼 사업장이 비교 가능한 동질 사업장이며, 양사가 자동차·전기·전자·식품 패키징 고객사를 상대로 유사한 품질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표준 동향 파악 시 상호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2-2. 롯데정밀화학: 셀룰로스 글로벌 1위의 안정형 모델

2024년 매출 1조 6,705억 원, 영업이익 504억 원, 영업이익률 약 3.0%를 기록한 롯데정밀화학은 가성소다 35만 톤(국내 3위), ECH, 암모니아(국내 점유율 약 70%), 셀룰로스(애니코트, 글로벌 1위), TMAC(반도체 현상액)를 주력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수공장이 광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자리해 있어 가성소다·암모니아 등 베이직케미컬에서 일부 경쟁 관계가 형성되지만, 셀룰로스라는 OCI에 없는 차별화 영역을 보유한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입니다.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ROE·ROA 지표가 양호한 안정형 사업구조가 강점이며, 외형이 작고 ECH 부문이 적자라는 점이 약점에 해당합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전방 산업 다각화와 R&D 투자 비중 확대로 변동성을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광양공장 품질관리가 추구해야 할 다중 spec 운영 모델의 벤치마크로 삼기에 좋은 사례입니다.

2-3. 한솔케미칼: 과산화수소 시장의 현실적 경쟁 상대

한솔케미칼은 2024년 매출 7,764억 원, 영업이익 1,288억 원, 영업이익률 16.6%라는 압도적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정밀화학 강자입니다. 반도체용 고순도 과산화수소 13.5만 톤으로 국내 1위 사업자이며, 삼성전자향 점유율이 약 70~80%에 달하는 깊은 고객 관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도 프리커서, QD 소재, 이차전지 바인더, 실리콘 음극재, 고체전해질 등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중입니다. OCI의 익산 H2O2 8.5만 톤과 광양 피앤오케미칼 5만 톤을 합산하면 13.5만 톤으로 한솔케미칼과 동일한 외형이 되지만, 반도체급 비중에서 한솔이 한 발 앞서 있습니다. 강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과 삼성과의 고착된 고객 관계이며, 약점은 단일 고객(삼성) 의존도가 약 80%에 달하는 집중 리스크입니다. OCI 입장에서는 광양 피앤오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코크스 오븐 가스 재활용 공정을 통해 H2O2를 생산한다는 차별화된 친환경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솔과는 다른 결의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4.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 거인이지만 카본블랙 부재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 매출 약 7조 1,547억 원, 영업이익 약 2,728억 원을 기록한 합성고무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다만 카본블랙 사업은 1998년 콜럼비안케미칼즈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카본블랙 사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OCI 광양 카본블랙과 정면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CNT(나노탄소), EPDM, MDI, BPA 영역에서 광양 BTX·가소제 다운스트림과 일부 간접 접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1년 OCI홀딩스와 자사주 스왑(상호 0.59%)을 통해 우호 지분 관계를 형성한 점도 주목할 만한 협력 구도입니다. 광양공장 품질관리 관점에서 금호석유화학은 합성고무·EPDM에 들어가는 카본블랙의 다운스트림 고객사이자 동시에 협력 가능 파트너이므로, 경쟁자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2-5. OCI Specialty의 정체성 정정과 광양 카본 사업의 실제 위치

본 분석에서 정정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OCI Specialty(엘피온)는 카본블랙 사업이 아니라 폴리실리콘 슬림로드·웨이퍼 자회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광양 카본블랙 사업이 별도 법인으로 분사된 적은 없으며, 현재도 OCI 주식회사 카본케미칼 사업부문(광양·포항 본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OCI 주식회사 매출 비중은 베이직케미칼 36 대 카본케미칼 64로 카본케미칼이 우위에 있으며, 카본케미칼 영업이익 비중은 약 68%로 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합니다. 카본케미칼 영업이익률은 2023년 8.9%에서 2024년 5.2%, 2025년 2.5%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6년에는 5.8%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삼성증권 리서치). 이러한 수익성 변동의 원인은 중국 카본블랙 공급 과잉, 자동차 산업 수요 변동, 원료 콜타르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품질관리 차원에서는 단가 압박이 강해질수록 수율과 부적합 비율의 작은 변동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 면접 활용 포인트

광양공장 품질관리 지원자가 회사 포지셔닝을 설명할 때 "한솔케미칼이 반도체 H2O2의 깊이라면, OCI는 카본블랙·피치·과산화수소·반도체 폴리실리콘의 폭"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이우현 회장의 5각 포트폴리오 구상(기초화학, 태양광, 미국 다운스트림, 반도체·배터리 소재, 도시개발·바이오) 가운데 광양은 그룹의 안정적 캐시 창출원이라는 위상을 정확히 이해하면 직무 가치 인식이 명확해집니다. 한미사이언스 통합 무산(2024년 3월) 이후 OCI는 베트남 NeoSilicon 웨이퍼(2.7GW), 미국 미션솔라(셀 1GW에서 3GW로 확대), 데이터센터 전력(500MW)으로 신사업 방향을 재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광양공장의 안정적 품질·이익이 신사업 자금줄로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광양공장의 품질관리 직무가 그룹 전체의 자본 재배분 전략에서 핵심 안정 변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 지주-사업회사 이원화 이후의 매출 믹스

2023년 5월 1일 인적분할 결과 OCI홀딩스(존속법인, 010060)는 말레이시아 OCI TerraSus, 미국 OCI Enterprises, 도시개발 자회사 DCRE, 부광약품 등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회사가 되었으며,

OCI 주식회사(신설법인, 456040)는 광양·포항·익산·군산 4개 공장의 화학·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로 자리잡았습니다. 2024년 OCI홀딩스 연결 매출 믹스는 화학 53.3%, 도시개발 13.2%, 신재생에너지 12.7%, 에너지솔루션 11.9%, 기타 8.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은 3조 3,8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고 영업손실 576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으나, 2025년 4분기에는 OCI TerraSus 가동 재개에 힘입어 영업이익 273억 원의 흑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사업회사인 OCI 주식회사는 2024년 별도 매출 1조 9,897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광양공장 매출 비중은 카본케미칼 부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회사 이익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본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2. 광양공장의 생산 라인업: 정확한 제품 지도

광양공장은 1976년 국내 최초의 콜타르 공장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카본블랙 연 10만 톤(국내 27만 톤 가운데 일부, 글로벌 그룹 합산 50만 톤), 피치 연 25만 톤(글로벌 합산 52만 톤), BTX 연 26만 톤, 무수프탈산(PA) 연 6만 톤, TDI, 가소제(DOP·DINP·DOTP·DINA)를 생산하는 카본케미칼 핵심 거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근에 자리한 합작 자회사 피앤오케미칼(P&O Chemical)은 광양시 태인동에 연 5만 톤 규모(전자급 3만 톤, 공업용 2만 톤)의 과산화수소 공장을 2022년 5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2024년 OCI가 포스코퓨처엠 보유 지분 51%를 인수하여 100%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피앤오케미칼은 충남 공주에 음극재용 고연화점 피치 연 1만 5,000톤 규모(963억 원 투자) 공장을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양산 개시하여, 이차전지 음극재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양공장이 가지는 특이점은 한 부지 안에서 자동차 타이어용(카본블랙), 알루미늄 제련·전극봉용(피치), 반도체용(과산화수소), 가소제·도료용(PA·BTX·TDI), 이차전지 음극재용(피치)까지 다섯 가지 다른 산업의 고객사를 상대로 동시에 품질 표준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국내 화학 사업장 가운데 가장 다층적인 품질 시스템을 요구하는 환경에 해당합니다.

3-3. 전략 방향: 비중국 수직계열화와 반도체 소재 확장

이우현 회장이 그룹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핵심 전략 메시지는 "비중국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와 AI 시대 고성장 분야 집중 투자"로 요약됩니다. 폴리실리콘 부문에서는 OCI TerraSus가 2027년까지 35,000톤에서 56,600톤으로 캐파 확대(8,500억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도쿠야마와 5 대 5 합작한 OTSM은 2027년 준공·2029년 반도체용 8,000톤(11-Nine, 99.999999999% 순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군산공장에서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4,700톤과 SiH4(모노실란) 1,000톤(영국 Nexeon에 5년간 700억 원 공급 계약)을 가동하고 있으며, 베트남 NeoSilicon 65% 인수(2025년 10월 완료)로 2026년 1분기부터 비중국 웨이퍼 2.7GW를 확보하여 2027년까지 5.4GW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공장 자체의 전략적 역할은 (1) 카본케미칼 캐시 창출, (2) ISCC PLUS 친환경 카본블랙 글로벌 표준 선도, (3) 음극재 피치를 통한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 (4) 반도체 H2O2 공급 능력 강화로 정리됩니다. 이러한 다중 미션은 광양공장 품질관리 부문이 단일 제품 단일 고객 모델이 아니라 다제품 다고객 다인증 운영 모델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4. 차별화 포인트: 광양공장이 만드는 안정성

OCI의 차별화는 기초·중간·정밀화학의 수직계열화와 비중국 출신 증명서라는 두 갈래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광양공장이 가진 차별화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976년 이후 축적된 50년의 콜타

르 정제 노하우, 둘째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생유 기반 ISCC PLUS 인증 카본블랙(한국타이어 컨소시엄 12개사 양산 시작), 셋째 코크스 오븐 가스 재활용 H2O2 국내 최초 공정, 넷째 음극재용 고연화점 피치 국내 최초 양산이라는 네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국내 카본블랙 1위, 글로벌 피치 3위라는 시장 지위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품질·공정 데이터가 만든 진입 장벽이며, 품질관리 직무는 이 데이터 자산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광양공장은 포스코의 콜타르 공급과 광양제철소의 코크스 오븐 가스 공급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원료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료 안정성은 품질 변동의 최상위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품질관리 입장에서는 IQC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 폭이 다른 사업장 대비 작다는 우호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3-5. 리스크 요인: 정책·가격·지배력의 3중 변수

핵심 리스크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성으로, 2018년 17달러에서 2025년 4월 4.43달러까지 하락했다가 2025년 4분기 6.53달러로 반등하는 과정에서 OCI TerraSus가 2025년 2~3분기 가동 중단되며 그룹 적자의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미국 정책 리스크로, IRA에서 OBBBA로 이어지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 Section 232 관세, FEOC·PFE 규정 등이 비중국 프리미엄을 정책 변경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우현 회장의 지배력 약화 이슈로, OCI홀딩스 본인 지분 6.55%가 숙부 이화영의 7.41% 대비 적은 상황이며, 한미사이언스 통합 무산과 자사주 스왑 평가손실 이후 신사업 성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공장 차원의 리스크로는 TDI가 2025년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수요 감소·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는 점, 카본블랙·피치도 중국발 공급과잉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환경·안전 규제 강화로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 운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며, 이는 품질관리 부서의 R&R이 환경·안전 부서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6. 지원 전략 시사점

광양공장 품질관리 지원자는 "이 회사의 캐시카우는 광양이고, 캐시카우의 신뢰성은 품질이 만든다"는 명제를 본인 직무 정체성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사업 영역(반도체 폴리실리콘, 음극재 피치, H2O2, SiH4)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제품 양산 이관 작업도 광양·포항 품질관리팀이 자동차·반도체 고객사 대응 노하우를 신사업으로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캐시카우 수호 임무와 신사업 품질 표준 확산 임무가 동시에 부여되는 이중 미션이 광양 품질관리 직무의 실제 입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 인식은 채용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입사 이후 직무 우선순위 설정과 학습 로드맵 구성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식 틀이 됩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공식 인재상 3C: 기회·도전·변화

OCI의 공식 인재상은 3C(Chance·Challenge·Change)와 6대 행동원칙으로 구성됩니다. Chance는 시장과 고객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미래 기회를 인지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Challenge는 적극적 사고와 진취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Change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추구를 의미합니다. 6대 행동원칙은 (1) Seize Emerging Opportunities, (2) Faster than Market

Change, (3) Global Outlook, (4) Flexible Open Mind, (5) Innovative Solution, (6) Entrepreneurial Thinking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OCI홀딩스와 OCI 주식회사는 동일한 3C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지만, 지주사는 전략·투자·재무 인재에, OCI 주식회사는 화학·소재·생산·R&D 실무형 인재에 무게 중심을 두는 차이를 보입니다. 광양공장은 사업회사인 OCI 주식회사 소속이므로 후자의 무게 중심이 더 강하게 적용되며, 특히 Innovative Solution과 Global Outlook이 품질관리 직무 KPI와 가장 가까운 키워드로 작동합니다.

4-2. 안전·환경 4P 원칙과 ESG 경영

OCI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4P(Priority, Positive, Partnership, Prevention) 원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Priority)에 두고, 자발적 자세로 시스템을 지속 개선(Positive)하며, 임직원·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형성하고, 사고를 사전 예방(Prevention)한다는 네 가지 가치를 묶은 체계입니다. 2019년에는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을 도입하여 약 1만 5,500여 종의 화학물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ISO 14001과 45001 통합 운영,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2019) 체결 등 외부 이해관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기술위원회는 공정 이상 발생 시 안전환경, 생산, 공무 전문가가 합동으로 가동 여부를 판단하는 거버넌스로 작동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는 품질관리 부서가 위급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를 규정하는 핵심 거버넌스이기도 합니다.

4-3. 사업장 분위기와 직장 평판 통계

OCI의 평균 연봉은 사이트별 추정치에 차이가 큽니다. 잡플래닛 추정치는 5,774만 원(13건 신고), 잡코리아는 6,036만 원, 사람인 기준 OCI 주식회사 1억 60만 원과 OCI홀딩스 1억 3,400만 원, 캐치 기준 OCI 9,700만 원과 OCI홀딩스 8,480만 원(초봉 5,325만 원)의 분포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신고 표본의 차이와 인적분할 전후 데이터 혼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 보상 수준은 직무·연차·근무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잡플래닛 종합 평점은 3.04점, 322건 리뷰, 추천율 34%이며 인적분할 이전의 통합 데이터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사업장별로 구분해 보면 광양·포항은 장치산업 특성상 교대근무·생산기능직 비중이 높으며, 군산은 R&D 및 신사업(이차전지 SiH4 등)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익산은 과산화수소·진공단열재가 주력입니다. 광양공장의 계측·품질 직무는 자동차 타이어용 카본블랙 IATF 16949 비중이 큰 점이 다른 사업장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이며, 이는 직무 학습 시 자동차 산업 품질 시스템이 보조 학습 분야로 자리잡는 환경을 만듭니다.

4-4. 안전 이슈의 객관적 이해

2017~2023년 OCI 군산공장에서는 질소가스 누출(2018년, 9명 후송), 삼염화규소(TCS) 누출(2022년 12월), 화상 사고(2023년 9월), 질산·불산 혼합물 하수 유입(2023년, 주민 20여 명 대피) 등 4회 이상의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OCI는 2025년 협력사 안전간담회(중대재해처벌법 특강)와 2026년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안전 거버넌스 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양공장 자체의 중대 사고 보도는 군산 대비 적은 편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의 화학공장에서 안전은 품질관리 직무의 1차 가치 기준이라는 인식이 지원자가 내재화해야 할 직무 윤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안전 이슈는 품질 이슈와 분리되어 있는 별개 영역이 아니라, 4M 변동, 공정 이상, 부적합 발생의 동일한 뿌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야가 도메인 전문성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4-5. 화학공장 품질관리 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화학공학회, ASQ, KSA 등이 발간한 자료와 국내 주요 화학사 직무기술서를 종합해 보면, 화학공장 품질관리 직무가 선호하는 인재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안전 최우선 마인드로, 폭발·누출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SHE 4P 원칙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사고로, SPC와 6시그마 도구를 활용하여 직관 의존을 지양하고 통계적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부서 협업력으로, QA·생산·R&D·영업·구매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핵심입니다. 넷째 정밀성과 꼼꼼함으로, ppb 수준 분석과 트레이서빌리티 유지에 필요한 세심한 일처리 습관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장기 프로젝트 관리 역량으로, ISO 갱신·CAPA·신제품 양산 이관과 같은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호흡이 긴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이공계 백그라운드로, 화학공학·화학·환경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 전공이 일반적이며, 일곱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영문 COA·8D·PPAP 작성 능력이 자동차·반도체 글로벌 고객사 대응 시 일상적으로 요구됩니다.

4-6. 지원 전략 시사점

OCI 인재상 3C 가운데 광양공장 품질관리 직무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키워드는 Innovative Solution과 Global Outlook입니다. ISCC PLUS 인증, IATF 16949, CBAM 대응은 모두 글로벌 표준 변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글로벌 시각을 요구하며, 8D, CAPA, 4M 변경관리는 관행을 뛰어넘는 혁신적 문제 해결 역량을 요구합니다. 즉 인재상은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직무 KPI와 일대일로 결합되어 있는 운영 원칙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4P 안전 원칙은 품질관리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안전이 항상 상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가이드라인이며, 이는 품질관리가 양산 일정 압박 속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조직적 정당성의 근거로 작동합니다.

5장: 직무 분석

5-1. 시간 단위별 핵심 업무 구조

품질관리 직무는 시간 단위에 따라 업무 성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일 단위로 보면 원료 입고검사(IQC) 단계에서 콜타르·BTX·메탈실리콘 등의 spec 검증, 공정 중간 샘플 분석(GC, HPLC, ICP), 출하 검사(OQC) 단계에서 카본블랙 입도와 요오드 흡착가, 피치의 연화점과 QI(불용성 퀴놀린) 측정, COA(Certificate of Analysis) 발행이 이루어지며, OOS(Out of Specification) 발생 시 1차 원인 분석과 격리 조치를 수행합니다. 주간·월간 단위로는 공정능력지수(Cp·Cpk·Pp·Ppk) 산출, NCR 추이 분석, 5-Why·Fishbone 근본원인 분석, 고객 클레임 8D 보고서 작성, CAPA 진행 점검, 4M(Man·Machine·Material·Method) 변경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간 단위로는 ISO 9001:2015 내부심사·외부심사 대응, IATF 16949 갱신, ISO 14001과 45001 통합심사, MSA 재시행, CAPA 효과성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간 구조는 일일 업무가 곧 월간 KPI를 형성하고, 월간 KPI가 모여 연간 인증 결과로 귀결되는 누적 구조이며, 따라서 일일 업무의 정확도가 곧 회사 전체의 인증 자산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직무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5-2. 이해관계자 맵

내부 이해관계자는 생산팀(공정 운전과 품질 1차 책임), R&D팀(신제품과 시험법 개발), 안전환경팀(SHE와 CMS 연계), 영업팀(고객 클레임 채널), 구매팀(원료 협력사 관리), 물류팀(출하·보관 품질), 공무팀(설비 정비)으로 구성되며, OCI 내부에는 안전기술위원회와 SH&E Leaders 협의체가 직무 협업 채널로 작동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원료 공급사(포스코의 콜타르·메탈실리콘), 고객사 QA(글로벌 타이어 메이커, 알루미늄 제련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3자 시험기관(KTR, KOLAS), ISO 인증기관(KCR, DNV, BSI, SGS, BV), 정부기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구성됩니다. 품질관리 부서는 이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정보를 번역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이해관계자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데이터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설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자동차 OEM 고객사가 PPAP 자료를 요구할 때 영업팀이 1차 채널이 되고 R&D가 시험법 자료를 제공하지만, 결국 데이터를 통합하고 책임지는 것은 품질관리 부서이며, 이 통합 책임이 부서의 조직 내 위상을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5-3. 필요 역량: 기술·지식·소프트스킬 구분

기술 역량의 핵심은 분석기기 운용 능력입니다. GC(BTX 순도와 VOC), HPLC(가소제 등 비휘발성 성분), ICP-OES와 ICP-MS(폴리실리콘 ppb급 금속불순물), FT-IR(작용기 분석), GC-MS(미량 불순물), XRF(카본블랙·피치 무기성분), 적정법(산도와 QI 측정), 칼피셔법(수분 측정), 점도계, 피치의 R&B(Ring & Ball) 연화점 측정기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품질도구로는 SPC, Cp·Cpk(목표 1.33 이상), 6시그마 DMAIC 사이클, MSA Gage R&R(30% 미만 양호, 10% 미만 우수), FMEA·PFMEA·FTA 등이 필수입니다. 품질 시스템 지식은 ISO 9001:2015, IATF 16949(자동차용 카본블랙 PPAP·APQP 절차), ISO 14001과 45001 통합심사, ISCC PLUS, REACH·RoHS·K-REACH까지 폭넓게 요구됩니다. 데이터 도구로는 Excel, Minitab, JMP, Python, R 등의 분석 도구와 LIMS, MES, SAP 등의 시스템 운영 도구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스킬로는 안전 의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습관, 다부서 조정력, 장기 프로젝트 관리 능력, 정밀성, 영문 보고서 작성 능력이 모두 필수이며, 이 가운데 영문 보고서 작성 역량은 글로벌 고객사가 한국에 직접 감사관을 파견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중요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영역입니다.

5-4. 핵심 KPI

품질관리 직무의 KPI는 다음과 같이 정량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PPM(Defective Parts Per Million)과 DPMO는 6시그마 수준에서 3.4 DPMO를 목표로 하며, 고객 클레임 처리 리드타임은 8D 기준 통상 60일 이내, CAPA 처리 시간은 30~60일이 표준입니다. NCR(부적합 보고서) 부적합품률은 추세상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FPY(First Pass Yield) 출하검사 합격률은 World-class 기준 98% 이상이 요구됩니다. Cpk 공정능력지수는 1.33 이상이 capable, 1.67 이상이 world-class 수준으로 분류되며, MSA Gage R&R은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부심사 Major NC 건수는 0건이 목표이며, COPQ(Cost of Poor Quality, 품질비용)는 매출 대비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장기 목표입니다. RFT(Right First Time) 지표 역시 점차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항목입니다. OCI 광양공장처럼 자동차 타이어 고객사 비중이 높은 카본블랙 영역에서는 IATF 16949 PPAP 통과율과 고객 PCN(Process Change Notification) 사전 통보 정확도가 추가 KPI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KPI는 단일 지표 개선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지표 시스템이며, 한 지표를 개선하면 다른 지표에 영향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합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설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5-5. 대표 업무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4M 변경관리 사례입니다. 콜타르 공급사 변경이 결정되면 4M 변경관리 절차서를 발행하고, 원료 spec을 비교하며, 소량 시생산을 진행한 후, 분석 데이터(점도, QI, 금속불순물)를 비교하고, PFMEA를 재평가합니다. 그 후 자동차 고객사에 PCN을 통보하고 PPAP를 재제출한 후 양산 적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8D 보고서 작성 사례입니다. D1 단계에서 팀을 구성하고, D2에서 5W2H로 문제를 정의하며, D3에서 lot 격리와 재고 hold를 시행하고, D4에서 5-Why와 Fishbone으로 근본원인을 분석합니다. 이어 D5에서 시정조치를 선정·검증하고, D6에서 실행과 효과성 확인, D7에서 SOP 개정, D8에서 lessons learned 종결로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OOS 처리 사례입니다. 측정·시험 오류 검증(재시험과 MSA)을 우선 수행하고, 공정 데이터 review(DCS, MES)를 진행한 후, 격리·재처리·폐기 결정을 내리고, CAPA 등록과 영향받은 lot 추적을 거쳐 필요 시 PCN을 발행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ISO 외부심사 대응 사례입니다. 사전 내부심사와 CAPA 종결, 경영검토를 거쳐 opening meeting과 인터뷰, 기록 검증, NC 발행 단계를 진행하고, 60~90일 안에 root cause 분석, 시정조치, 효과성 검증을 완료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시나리오는 광양공장 품질관리 부서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대표 업무이며, 각각의 시나리오 안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양식, 협업 부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도구·양식·부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직무 숙련도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5-6. 면접 활용 포인트

광양공장 품질관리 직무가 다른 사업장 품질관리 직무와 구별되는 차별 포인트는 카본블랙의 IATF 16949, 피치의 알루미늄·음극재 고객 spec, 과산화수소의 반도체급 spec, ISCC PLUS 등 네 가지 표준을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다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일 표준 경험만 있는 인력보다는 다중 표준의 우선순위 설정과 충돌 해결 경험을 가진 인력이 가치 있게 평가됩니다. 또한 OCI는 카본블랙 ISCC PLUS 인증을 한국타이어를 포함한 12개사 컨소시엄과 함께 양산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어, 친환경 원료 추적성과 공급망 데이터 검증 역량을 보유한 인력은 평범한 QC 인력을 넘어 신사업 enabler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광양공장에서 축적되는 다중 표준 운영 노하우는 향후 군산 SiH4, 베트남 NeoSilicon, 미국 미션솔라 등 신규 사업장에 표준 운영 모델로 이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양에서의 경력은 그룹 전체 신사업의 품질 표준을 설계하는 위치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OCI 광양공장 품질관리 직무는 카본케미칼 캐시카우의 신뢰 자산을 지키면서 동시에 비중국 친환경·반도체 신사업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이중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광양공장은 OCI 주식회사 매출의 다수와 그룹 영업이익의 약 68%를 책임지는 카본케미칼 부문의 핵심 거점이며, 카본블랙·피치·BTX·PA·TDI·과산화수소·음극재용 고연화점 피치까지 한 부지 안에서 운영되는 국내 최대 다층적 정밀·석탄화학 복합 사업장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의 V자형 사이클, 미국 OBBBA와 Section 232, EU CBAM 확대, 한솔케미칼·롯데정밀화학·한화솔루션 등 경쟁자의 신사업 가속화라는 외부 압력 속에서 광양 품질관리 인력은 ISO 9001, IATF 16949, ISCC PLUS, REACH 등의 다중 표준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자동차·반도체·이차전지 고객사의 까다로운 spec을 만족시키는 핵심 자원이 됩니다. OCI 인재상

3C 가운데 Innovative Solution과 Global Outlook이 이 직무의 일상 KPI와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광양에서 축적되는 운영 노하우가 그룹 전체 신사업의 품질 표준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양 품질관리 직무는 그룹 전체의 미래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자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① 글로벌 컨설팅·리서치 기관

1. **Straits Research 폴리실리콘 시장 2024~2033** — https://straitsresearch.com/report/polysilicon-market
2. **Business Research Insights 폴리실리콘 시장 분석** — https://www.businessresearchinsights.com/market-reports/polysilicon-market-104802
3. **Future Market Insights 폴리실리콘 2025~2035** — https://natlawreview.com/press-releases/global-and-european-polysilicon-market-outlook-2025-2035
4. **Mordor Intelligence 카본블랙 시장** — https://www.mordorintelligence.kr/industry-reports/carbon-black-market
5. **Global Market Insights 스페셜티 카본블랙** — https://www.gminsights.com/industry-analysis/specialty-carbon-black-market
6. **Kings Research 카본블랙 시장 보고서** — https://www.kingsresearch.com/carbon-black-market-690
7. **GII Korea 표준 카본블랙 시장** — https://www.giikorea.co.kr/report/moi1403938-carbon-black-market-share-analysis-industry-trends.html
8. **Grand View Research 폴리실리콘 분석** —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polysilicon-market-analysis
9. **IMARC 한국 카본블랙 시장** — https://www.globalresearch.co.kr/insight/carbon-black-market-imarc-2/

② 외부 언론·증권사 리포트

10. **삼성증권 OCI홀딩스 리포트** — 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saveKey=research.pdf&fileName=2010/20260316093116 38K_02_09.pdf
11. **KIS 한솔케미칼 신용평가서** —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50617-32.pdf

12. 한국경제 OCI홀딩스 1분기 분석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82642i

13. 한국경제 한솔·OCI 과산화수소 시장(2025.12.7)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786841

14. 시사저널e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과 OCI홀딩스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117

15. 더벨 OCI그룹 사업구조 분석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101613064746001 01925

16. 디일렉 OCI 반도체 폴리실리콘 —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54914

17. 이투데이 한미사이언스 통합 무산(2024.3) —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5336

18. 인사이트코리아 OCI홀딩스 4분기 흑자전환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128

19. 인사이트코리아 한솔케미칼 반도체 소재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47

20. 에너지뉴스 OCI홀딩스 매출 3.577조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97

21. ZDNet 코리아 OCI홀딩스 2분기 적자 — https://zdnet.co.kr/view/?no=20250724153930

22. 이로운넷 한화솔루션 2024 실적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564

23. 시대 OCI홀딩스 비중국 태양광 — https://www.sidae.com/article/2026021214405898830

24. CNews OCI 피앤오케미칼 과산화수소 — https://www.thecommoditie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1

25. 인사이트코리아 롯데정밀화학 영업이익 추이 —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19

26. 비즈워치 한화솔루션 영업이익 전망 — https://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6/04/20/0014

27. 서울경제 OCI홀딩스 친환경 폴리실리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O0C9H7B

28. **앰뉴스 OCI 광양 과산화수소 공장 착공** — http://amenews.kr/news/view.php?idx=44287

③ OCI 공식 IR·뉴스룸

29. **OCI 인적분할 보도자료** — https://www.oci.co.kr/newsroom/news/1
30. **OCI 광양 카본블랙 ISCC Plus 인증** — https://www.oci.co.kr/newsroom/news/20
31. **OCI 광양 음극재용 피치 공장 준공** — https://www.oci.co.kr/newsroom/news/17
32. **OCI 군산 SiH4 공장 착공** — http://www.oci.co.kr/newsroom/news/24
33. **OCI 카본블랙 사업소개** — https://wetalkotalk.oci.co.kr/sub/business/cabon.asp
34. **OCI 과산화수소 사업소개** — https://wetalkotalk.oci.co.kr/sub/business/hydrogen.asp
35. **OCI 폴리실리콘 사업소개** — https://wetalkotalk.oci.co.kr/sub/business/poly.asp
36. **OCI홀딩스 IR 요약** — https://www.oci.co.kr/ir/summary
37. **OCI 인재상(3C) 공식 페이지** — https://www.oci.co.kr/recruit/our-values

④ 채용·평판·직무 표준

38. **잡플래닛 OCI 리뷰** —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17662/reviews?by_occupation=11200&by_currently_employed=
39. **캐치 OCI 재무평가** — https://www.catch.co.kr/Comp/CompInfo/PW7972
40. **인크루트 OCI 채용 기업정보** — https://www.incruit.com/company/1687287874/
41. **FnGuide OCI홀딩스 컴퍼니가이드** — https://comp.fnguide.com/SVO2/ASP/SVD_Main.asp?gicode=A010060
42. **InteyCX 품질관리 KPI 글로벌 기준** — https://www.intelycx.com/resources/quality-control-kpis-in-manufacturing/
43. **CarbonLink CBAM 확대와 한국 기업 영향** — https://blog.carbonlink.co.kr/석유화학플라스틱까지-2030년-cbam-확대로-한국-기업-초비상-68105
44. **위키백과 OCI 기업 페이지** — https://ko.wikipedia.org/wiki/OCI_(기업)
45. **나무위키 OCI 페이지** — https://namu.wiki/w/OCI